보 도 자 료

배포 일자	2026. 11. 05. (목)	총 4페이지	담당자	권주리 사무총장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아청법 개정 6년, 판례를 통해 돌아보다”

- 입법 취지와 사법 현실 사이: 판례 6,100여 건으로 본

'아청법' 개정 전후 10년의 변화와 한계 -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11월 25일(수)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6년 11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아청법 개정 6년, 판례를 통해 돌아보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주민·이수진·이주희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이 주관합니다. 성평등가족부,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케링 재단이 후원합니다.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이 개정됨으로써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이나 강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게 되었으며, 이후 연이은 법개정으로 성착취물 구입·시청과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되면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보호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곧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 6년을 맞아 현장에서는 개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개정 이후만이 아니라 개정 이전과 비교해야 했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2020년 개

정을 기준으로 개정 전 5년과 개정 후 5년, 2016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선고된 성착취 관련 판례 6,100여 건을 수집·분석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분석 대상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소지·시청, 성착취 목적 대화입니다. 분석 항목은 형량과 부수처분, 피해자 연령과 피해자 수, 채팅앱·SNS 유형,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합의·공탁, 양형 가중·감경요소 등이며, 이를 개정 전후로 비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첫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입법 취지와 사법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회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1부 주제 발표에서는 판례 분석을 수행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4인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추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판결문 분석의 배경과 목적, 종합평가와 사법·입법·행정 개선 제안을 발표하고, 김수현 변호사(서사 법률사무소)는 판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변화 양상을 살펴봅니다. 이어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서의 합의 및 공탁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는 판결문 분석에서 선정한 주요 판례와 양형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짚습니다. 발제자들은 개정 전후 법원의 사실인정과 양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지위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례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2부 토론에서는 정부(이수림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연구기관(정유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원(이유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간사) 전문가들이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양형기준과 수사·공판 실무 개선 방안,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절차 정비를 통해 사회적·사법적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후속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청법'개정이라는 성과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정 전후 10년의 판례 데이터로 아청법 개정이 만들어 낸 변화와 아직 넘지 못한 한계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분석 결과를 후속 실태조사와 입법 과제 도출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 자료: "아청법 개정 6년, 판례를 통해 돌아보다" 웹전단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토론회

아청법 개정 6년, 판례를 통해 돌아보다

2026년 11월 25일(수) 14시~17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곧 법정의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아청법' 개정 전 5년과 개정 후 5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선고된 판례 6,100여 건을 수집하고, 형량과 양형 사유, 피해자의 지위가 개정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첫 결과를 나누고, 아청법 개정이 만들어 낸 변화와 여전히 남아 있는 한계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입법 취지와 사법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울 해법을 찾는 자리에 모두 오셔서 고견과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와 공동주최 단체 일동 올림

세부 일정

14:00~14:30	공동주최 인사 및 축사
14:30~15:50	좌장: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발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2. **김수현 변호사** (서사 법률사무소) 3. **조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이채) 4. **배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천지인)
15:50~16:00	휴식
16:00~16:30	[토론] 1. **이수림**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2. **정유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 **이유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간사)
16:3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주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주민·이수진·이주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후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KERING FOUNDATION

문의처: 십대여성인권센터(02-6348-1318)